

# 한마음혈액원 사내강사 1호

- 2016년 사내강사 양성 입문과정을 마치고



한마음혈액원 혈액안전실  
박새롬

11월 초, 한마음혈액원 품질관리실로부터 사내강사 양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강의하는 방법을 교육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와 관련된 공문을 찾아보니 사내강사 입문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었다. 과정별 20시간씩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입문 과정은 강의에 관한 이론 및 PPT 작성 방법, 심화 과정은 실전 모의 훈련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침 신규 간호사 직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망설임 없이 선뜻 교육을 신청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치악산 호텔에서 사내강사 입문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각 센터에서 모인 교육생은 총 13명으로 '생각보다 적은 인원 수가 참여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강의를 시작 되자마자 첫 번째 과제는 3분 스피치였다. 사내 강사로서의 마음가짐 3가지를 제한시간 3분 안에 발표하는 것이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던져 준 주제를 가지고 강의 하려니 어찌나 떨리던지.... 앞에 서자마자 머리는 백지 상태가 되고, 불안한 시선 처리와 어찌할 바 모르는 손동작들로 누가 봐도 초보자라는 모습을 보였다. 어찌됐던 불안하게 3분 스피치를 마쳤다. 나 스스로도 만족 할 수 없는 발표였지만, 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봐야 했다. 느낀 점을 발표해야 했다. 혼자 본 것인데 불고하고 너무 창피했다. 속상한 마음과 함께 '아, 괜히 왔나' 하는 생각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렇게 교육생들의 강사로서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지, 강사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 본격적으로 이론 수업이 시작되었다.

우선, 'P-R-E-P 전개법'에 대해서 배웠다. 말할 것을 미리 말하고, 말한 뒤, 다시 말한 것을 정리해 말하는 '3단계 제시법'과 근거,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이다.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에 맞게 다시 발표한 후 교육생끼리 피드백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강의 스킬 익히기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교육생 강의에 대해 분석하고 볼 줄 아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났다. 강사님과 교육생들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에 응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의 스킬이 늘었다. 교육생이 13명이다 보니, '링겔만 효과'와 같은 '손빼기 현상'이 나타날 틈이 없어 교육생 모두가 교육에 집중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쉬는 시간에도 교육 자료 준비 및 여행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교안 작성 방법 및 슬라이드 디자인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강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교육생 시선을 끄는 노하우, 효과적인 강의 전개를 위해 사용하는 실습, 토의, 스팟의 활용방법 등을 배웠다. 또한 학습자를 설득하기 위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중간 중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강의의 신세계에 눈을 떴다. 교육생끼리 서로 공유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비록 사내강사 과정이지만, 강의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표정 및 제스처, 음성 등 3위 일체 되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강의 기법들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육생 서로에게 피드백 하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값진 조언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상을 통해 강의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보며 사내강사로서 좀 더 성장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종합실습 및 피드백



사내강사로서 새로운 출발



때론 힘들었지만 보람찬 2박 3일간 21시간 교육을 마치니, 사내 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직 미숙하지만 한마음혈액원 첫 사내 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번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사내 강사로 활동하기를 바란다. 🍀